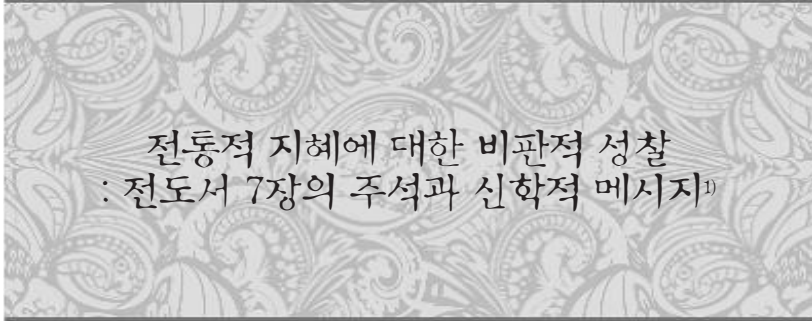


구약논단

제17권 4호(통권 42집) 2011년 12월 31일

차 준희(한세대)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57
이 논문은 신학교의 교단과 교회의 강단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저자는 해석적 난제를 내포하고 있는 전도서 7장을 주석하고 본문의 의미를 파악한 후,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도출해 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신학자의 주석적 노력이 교회의 설교 현장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Cha, Jun-Hee The Critical Reflection of the Traditional Wisdom: The Exegesis and Theological Message of Ecclesiastes 757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¹⁾

차준희 | 한세대

1. 들어가는 말

신학교의 교단과 교회의 강단의 괴리는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양자 간의 괴리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분야가 성서학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성서학은 학문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강단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했고, 교회의 강단은 목회현장의 특수성에 몰두한 나머지 교단의 연구물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교단과 강단의 상호존중과 상생은 양쪽의 건강한 존속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서학이 눈높이를 낮추어 교회의 강단에 봉사하기 위하여, 강단의 설교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담아내려고 한다. 이 논문은 적지 않은 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도서 7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집중하며,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도출함으로써 설교의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성서학이 교회의 강단에 다가가는 하나의 사례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전도서 7장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문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비판적인

1)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인생관에 대한 제동(전 7: 1-10), 둘째, 하나님의 활동(전 7: 11-14), 셋째, 중용을 통하여(전 7: 15-20), 넷째, 관용 혹은 의심(전 7: 21-22), 다섯째, 지혜의 불가해성(전 7: 23-24), 여섯째, 여성혐오적인 진술(전 7: 25-2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전 7: 1-10 비판적인 인생관에 대한 제동
- 11-14 하나님의 활동
- 15-20 중용을 통하여
- 21-22 관용 혹은 의심
- 23-24 지혜의 불가해성
- 25-29 여성혐오적인 진술

2. 본문주석

1) 비판적인 인생관에 대한 제동(전 7: 1-10)

전 7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전도서에서 가장 난해한 장으로 유명하다.²⁾ 특히 전 7장 1-10절은 다른 주장의 인용과 전도자 자신의 진술(해석)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전도서의 중심 의도는 인용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하고 있는 전도자의 진술에 담겨있다. 전 7장 1-6a절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고, 6b-10절은 이러한 견해에 대한 전도자의 비판적인 해석으로 보인다.³⁾ 즉, 전 7장 1-6a절은 지혜문학적인 염세주의를 진술한 인용문이고, 6b-10절은 지혜문학적인 염세주의의 한계를 묘사한 전도자의 비판적 해석이다.

전 7장 1절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말한다. 1a절과 1b절은 동의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2)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김 귀탁 역), (서울: 솔로몬, 2008), 222쪽.

3) L. Levy, *Das Buch Qoheleth,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Sadduzäismus* (Leipzig: J. C. Hinrich'sche Buchhandlung, 1912), 103-105쪽;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126-137쪽; A. Bonora, *Il Libro di Qoèlet* (Guide Spirituali all'Antico Testamento), (Roma: CittàNuova, 1992), 110-115쪽.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b절은 죽는 날과 출생한 날을 대조하여 비교하고 있다. 그렇다면 1a절의 “좋은 이름”은 1b절의 “죽는 날”과 상응하고, “좋은 기름”은 “출생하는 날”과 상응한다.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슬픈 상황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나 잔치의 기름으로 이해된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삼하 2: 14; 참조, 시 23: 5; 92: 10; 133: 2; 암 6: 6).

또한 여기서 “좋은 이름”은 죽음의 때와 관련된다. 한 인간의 삶(이름)은 죽음의 날에 이르러야 제대로 평가된다: “사람의 일생은 마지막 날에야 드러난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의 행불행은 최후 순간에야 알 수 있다”(집회서 11: 27b-28). 특히 의인의 이름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억된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잠 10: 7; 욥 18: 17; 겔 16: 14). 따라서 1절은 슬픔(“좋은 이름”)이 기쁨(“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고 말한다.

전 7장 2절은 1절의 죽음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여기서 잔치는 결혼식 잔치이거나 할례 잔치를 의미한다(참조, 렘 16: 8; 에 7: 8).⁴⁾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서 한 인간의 진실이 드러난다. 이를 유념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진실 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2b절은 이러한 점을 산자들이 마음에 담아주고 살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전 7장 3절은 1-2절의 비판주의적인 음조를 계속하고 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표현은 내적 체험과 외적 표현과의 불일치를 표현한다. 이러한 관찰은 잠 14장 13절에서도 표현된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전 7장 3절과는 정반대로 언급하고 있다. 전도서는 외적 슬픔과 내적 유익으로, 잠언은 외적인 웃음과 내적인 슬픔으로 표기한다. 전 7장 3절의 진술은 이미 1-2절에서 언급되었던 엄

4) L. Levy, *Das Buch Qoheleth,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Sadduzäismus* (Leipzig: J. C. Hinrich'sche Buchhandlung, 1912), 104쪽.

세주의적인 인간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슬픔의 외모(얼굴의 근심)가 올바른 태도이고, 제대로 된 통찰을 가진 자의 표지라는 것이다.⁵⁾

전 7장 4절은 1-3절의 진술을 확고히 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진술은 마치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프다”라는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인생관과 유사하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전도자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이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즐기치게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왔다(전 2: 24-26; 3: 10-15; 3: 22; 5: 17-19). 이와는 달리 1-6a절은 슬픔이 기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선전한다.

전 7장 5-6a절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과 같이 지혜와 교육의 우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잠 12: 1; 참조. 잠 13: 1, 18; 17: 10). 5절은 지혜와 교육은 엄격함과 훈육과 고통을 동반한다는 전승에 서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단수)의 책망을 듣는 것”이란 전형적인 학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사는 엄격함과 체벌의 위협을 통하여 수업을 이끌어간다. 또한 “우매한 자들(복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란 잔치집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6a절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란 표현은 우매자의 웃음소리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쉽게 타오르지만 곧 꺼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술의 물도 데울 수 없는 쓸데없는 짓임을 진술한 것이다. 잔치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우매한 자들의 소리로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이다.

전 7장 1-6a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간의 삶이란 죽음을 향하여 가는 행로(行路)와 다르지 않다(2a절). 죽음이란 인간의 본질적이면서 최종적인 진실이다(1b절).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사실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2b절). 통찰력이 있는 사람(지혜로운 자)은 초상집을 향하고,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우매한 자)은 잔치 집에 머문다(4절). 인생의 즐거움(우매자들의 웃음소리)은 짙은 불과 같이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6a절). 인간 존재에 대한 분석에서 전도자는 이 구절(1-6a절)의 저자와 다르지 않다. 두 저자가 같은 기반에서 있다. 인간의 삶이란 전도자에게도 죽음으로 향하는 삶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존재분석에서는 전도자와 이 구절의 저자와 일치점을 보이지만, 여기서 추론되는 행위분석에서는 각자가 다른 길로 간다. 이 구절의 저자는 인간의 삶이란 죽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초상집에 두어야 한다고 비관적인 삶을 권장한다(2b절).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살아 있는 현재를 즐기라’(Carpe diem)고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현실의 분석은 같지만 결론적 행동방향은 전혀 상이하다.

전 7장 6b-10절은 1-6a절의 지혜문학적 허무주의 내지는 염세주의에 대한 전도자의 비판을 보여준다. 6b절의 “이것도 헛되니라”는 헛된 진술은 전 단락인 1-6a절 모두와 관련되며, 이 단락 전체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전도자가 전 단락의 주장이 헛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7절에서 소개된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7절). 이 구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כִּי) 억압(פְּזִיז) 오췘크)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하고, 뇌물이 마음(이성/명철)을 부패하게 하기 때문이다”이다. 전도자는 1-6a절의 전통적 지혜자의 주장은 외부적 강압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헛된 주장이라고 평가한다(7a절).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든 외부적 억압이 과연 무엇인지는 현재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알 수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추정할 수는 있다. 아마도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는 특히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불의와 억압이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전 4: 1-3; 5: 8-9). 유대의 지식층들(지혜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과거를 미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전 7: 10a: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⁶⁾

정치, 사회적으로 강압적이며 불황의 상태에 빠진 현실은 흔히 대중을 우울하게 만들고, 특히 사회지도층들에게 염세주의적인 분위기를 갖게 하기 쉽다. 7b절의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는 표현은 외적 환경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시하면서 이러한 지혜자의 염세주의적 입장이 왜곡된 결과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전도자는 왜곡되지 않은 현실의 본질적인 모습을 직시하도록 인도한다.

전도자는 8절에서 1-6a절의 저자가 많이 사용하는 “-보다 -이 낫다”는 진술방

5) L. Schwienerhorst-Schönberger, *Kohe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372쪽.

6) L. Schwienerhorst-Schönberger, *Kohelet*, 375쪽.

식(1-3절, 5절)을 마치 패러디라도 하듯이 동일하게 사용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자는 이 구절에서 인용문의 내용에 반(反)하는 두 가지 진술을 구약의 지혜전승에 기대어 제시한다. 첫째 반론은 8a절에서 소개된다. 8a절은 “일의 마지막이 그 일의 시작보다 낫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전통적인 지혜전승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 7; 참조. 욥 42: 12). 이 구절은 현재의 삶을 비판적으로만 판단하는 인용구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판단은 선부른 것으로서, 현재의 현재가 현재의 전부는 아니며 보다 나은 현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반론은 8b절에서 나온다. 8b절의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는 3a절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이라는 표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슬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כָּאִישׁ(카아스)로, 9절에서 ‘노’로 번역된 단어와 같다. כָּאִישׁ(카아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차적으로 ‘분노’이다. 따라서 8b절은 3a절의 “분노가 웃음보다 낫다”⁸⁾는 인용구의 주장을 반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 밖의 지혜문헌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 32; 참조. 잠 22: 24; 25: 28). 전도자는 전통적인 지혜본문을 근거로 인용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전 7장 9절은 권고문의 형식으로 8b절로부터 결론을 추론해내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근거를 더 보태고 있다: “급한 마음으로 노(כָּאִישׁ 카아스)를 발하지 말라 노(כָּאִישׁ 카아스)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8b절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권면이 9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전도자는 여기서 인용구에서 선전하고 있는 추천내용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임(“노 <카아스>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전도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뻐하라고 촉구하는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런즉 근심(<카아스>: 분노)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전 11: 10a).

7) H. F. W.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361쪽.
8) 다음의 학자는 이 본문(3a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67쪽.

전 7장 10절은 이 단락의 결론적 진술에 속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쩔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구절은 과거를 미화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인용구(1-6a절)의 염세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한다. 이들은 시대는 가면 갈수록 늘 악화진다는 사상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홀리간 시간에 대한 찬미자”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인생관에 대한 전도자의 배격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8a절의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과거가 현재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10a절). 전도자는 여기에서 과거로 도피하는 불건전한 낭만주의를 배격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를 바라보게 한다.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⁹⁾

2) 하나님의 활동(전 7: 11-14)

전 7장 11-14절도 앞 단락과 마찬가지로 인용(11-12절)과 반박(13-14절)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먼저 인용구(11-12절)는 지혜의 위대한 가치를 찬양하고 있다. 전 7장 11절은 “지혜는 유산(遺産)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고 한다. 지혜는 물려받은 재물과 같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11a절). 11b절의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 있는 자를 가리킨다. 전도자는 이전에 어두움을 죽음의 자리로 표현한 적이 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전 6: 4; 참조. 전 5: 17). 지혜는 특히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한다(11b절).

전 7장 12a절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에서 두 번 쓰인 “그늘”은 여기에서는 보호를 상징한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시 17: 8; 참조. 시 36: 7; 57: 1; 63: 7; 91: 1). 12a절은 지혜의 보호와 돈의 보호를 동급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12b절은 지혜가 돈보다 우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점에서 돈보다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 지혜가 생명을 살린다는 점은 전통적인 지혜문학에서도

9) H. 링그렌/W. 침멀리, 『잠언/전도서(국제성서주석)』(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23쪽.
10) 이 단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23쪽;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79쪽 등.

자명한 것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 3: 18; 참조, 잠 28: 26 등).

전도자는 전 7장 11-12절에서 진술된 지혜의 위대한 가치성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13-14절에서는 비판적으로 토를 단다. 전도자는 먼저 13a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명령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13b절)며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수사학적 질문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참조, 전 1: 15; 3: 10-11). 따라서 11-12절에서 진술된 지혜의 도움으로 삶의 위험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부된다.

전 7장 14절은 이러한 통찰력을 보다 실제적으로 설명한다: “형통한(חַיִּים 토바) 날에는 기뻐하고(וַיִּשְׂמַח 하야 베토브) 곤고한(עָנִי 라아) 날에는 되돌아보아라(וַיִּשְׂמַח 라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직역하면, “형통한(חַיִּים 토바) 날에는 즐거워하고(וַיִּשְׂמַח 토브), 불행한(עָנִי 라아) 날에는 바라보아라(וַיִּשְׂמַח 라아), (즉,) 다른 날(형통한 날)과 같이 이 날(불행한 날)도. 이 둘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서 인간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이다. 이 진술에는 언어유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토바>-<토브>, <라아>-<라아>: “<토브>의 날에는 <토브>하고, <라아>의 날에는 <라아>하라”). 모든 사람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만나게 된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다. 그날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말이다(참조, 욥 2: 10; 암 3: 6; 9: 4). 인간에게 닥치는 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기에 인간은 그 날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날을 막을 수도 없다. 단지 받아들이고 견디어 낼 수밖에 없다(14a절). 그래도 인간에게 주어지는 날들이 무가치하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14b절). 이 구절에서도 전도자가 늘 그래왔듯이 알 수 없는 미래의 삶에서 시선을 돌려서 현실의 삶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암시적으로 반영되어있다(참조, 전 3: 22).¹¹⁾ 아무튼 이 구절은 인간은 어떤 경우든 지혜를 통하여 곤고한 날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진술은 11-12절의 지혜의 맹목적인 위대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한다.

11)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80쪽.

3) 중용을 통하여(전 7: 15-20)

전 7장 15-20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윤리의 근본 특징을 묘사한다.¹²⁾ 여기서도 전도자는 비판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진술을 전개한다. 그의 근본 사상은 ‘가운데 길’(der Weg der Mitte), 즉, 중용(mediocritas)이다.¹³⁾ 여기서 이 길은 하나님 경외의 모티브를 통하여 신학적으로 그 근거가 제시된다(18b절). 이것은 흔히 간과되고 있는 점이다. 전도자가 여기서 추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가운데 길은 극단적인 길들의 수정으로 이해된다.¹⁴⁾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15절: 관찰, 2) 16-17절: 네 가지 충고(중용을 매개로), 3) 18절: 결론(하나님 경외), 4) 19절: 인용(15-18절에 대한 반론), 5) 반박(19절의 반론에 대한 반박).

전 7장 15a절은 전도자 자신의 관찰임을 보여준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15b절은 그 관찰 내용을 소개한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내용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사상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잠 4: 10; 참조, 신 4: 40; 잠 3: 1-2; 7: 24-27; 10: 2, 27 등).

전도자는 15절의 관찰결과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16절)라며 충고한다. 여기서 “의인이 되지도 말며”가 아니고 “지나치게(חַרְבֵּי חַרְבֵּי) 의인이 되지도 말라”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의인됨에도 여러 단계의 수준이 있다. 적어도 해(害)가 될 정도로 지나친 의인은 삼가라는 말이다. 여기서서는 자멸(自滅)

12) 이 단락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R. Lux, “Der ‘Lebenskommiss’ –ein Weseszug im Denken Kohelets? Zur Auslegung von Koh 7,15–18,” J. Hausmann/H.-J. Zobel(Hg.), *Altestamentlicher Glaube Biblische Theologie*, (FS H. D. Preuss), (Stuttgart: Kohlhammer, 1992), 267–278쪽; R. Lux, “Denn es ist kein Menschen so gerecht auf Erden, daß er nur Gutes tue...(<: Recht und Gerechtigkeit aus der Sicht des Predigers Salomo,” *ZThK* 94 (1997), 263–287쪽, 특히 274–276쪽.

13) 이러한 ‘중용의 사상’의 기원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H. Choi, “The Doctrine of the Golden Mean in Qoh 7,15–18: A Universal Human Pursuit,” *Biblica* 83 (2002), 358–374쪽.

14)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84쪽.

15)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27쪽.

에 이를 정도의 의인됨은 피하라고 충고한다(“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6b절). 뒤이어 나오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표현은 앞 구절과 동의 평행법으로 사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지혜전승에서 토라를 준수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으로, 토라를 경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된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잠 9: 9). 지혜는 의의 길을 걷는다: “나는[지혜]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잠 8: 20).¹⁶⁾ 결국 집회서는 지혜와 토라를 동일시한다(집회서 24장).¹⁷⁾ 전도자는 지혜와 토라의 동일시라는 전제하에 지나친 토라의 준수를 경고하고, 지나친 지혜의 추구도 비판한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16a절; 참조. 전 8: 16-17).

전도자는 전 7장 17절에서 16절에서 언급된 인물과는 대조되는 대상을 거론한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6a절에서는 의인과 지혜자가 병행되어 언급되었다면, 17a절에서는 악인과 우매한 자가 나란히 지목된다. 악인과 우매한 자도 정도에 지나치면 단명(短命)할 수도 있다. 전도자는 의로움이나 악함, 지혜나 어리석음과 같이 어느 한 편에 인생을 주관하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것들은 어느 쪽이든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 주지 못한다.¹⁸⁾ 전도자의 충고에 따르면, 의인과 악인 사이에,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에 제3의 길이 존재한다.

전도자는 전 7장 18절에서 이 단락의 결론을 내린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 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문맥에서 이것은 ‘의로움’(의인)을, 저것은 ‘악행’(악인)을 가리킨다. 전도자는 의로움도 붙잡고, 악행도 놓지 말라고 한다. 물론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악행은 여기서는 제외된다. 여기서 חָיִל (짜디크/의로

움)과 רָשָׁע (라사/악행)는 각각 ‘윤리적으로 선한’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악한’이라는 뜻도 아니다. 이 문맥에서 <짜디크>와 <라사>는 ‘태도’를 가리킨다.¹⁹⁾ 즉, <짜디크>는 ‘토라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라사>는 ‘토라에 반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율법(תּוֹרָה 토라)을 버린 자는 악인(רָשָׁע 라사)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잠 28: 4; 참조. 시 1편; 시 119편).²⁰⁾ 따라서 전도자는 토라에 근접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나 삶을 권고한다.

전도자는 18b절에서 제3의 길을 제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יִפְּטוֹר (야짜)는 사전적으로는 ‘벗어나다/모면하다’²¹⁾ 또는 ‘바로 행동하다/의무를 수행하다’²²⁾라는 뜻도 가능하다. 전자의 의미를 취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멸과 단명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언어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²³⁾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과응보 사상과 일치한다: “야웨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잠 10: 27). 전도자는 이 단락에서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문제시하고 있다(15절; 참조. 전 8: 12b-14).²⁴⁾ 이를 전도자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가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더 적절해 보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극단인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악행과 관련하여 바른 태도요 행동이라는 것이다.

19)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87쪽.

20) N. Lohfink, *Kohé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54쪽;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88쪽.

21) 이런 입장을 취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L. Köhler/W. Baumgartner(Hg.),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con zum Alten Testament*, (Bd. II), (Leiden: E. J. Brill, 1974), 407쪽; H. 링그렌/W. 칩멀리, 『잡언/전도서(국제성서주석)』, 328-329쪽.

22) 이런 번역을 취하는 학자로는 다음과 같다: R. Gordis, *Kohélet: 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 277-278쪽; N. Lohfink, *Kohélet*, Die Neue Echter Bibel, 57;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24-225쪽; M. V. Fox,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49쪽.

23) Seow는 이러한 번역이 창 44: 4; 출 9: 29, 33; 신 14: 22; 렘 10: 20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본다: C. L. Seow, *Ecclesiaste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255쪽; P. Joüon/T. Muraoka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P. Joüon/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Press, 1991), 125n.

24)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89쪽.

16) B. Johnson, “חָיִל”, ThWAT 6, (1989), 898-924쪽, 특히 909쪽.

17) 바리새파적-랍비적 유대교에서 보는 지혜와 토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M.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 des 2. Jh. v. Chr.*,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88), 307-318쪽.

18)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28쪽.

여기서 ‘하나님 경외’는 토라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련하여 ‘일종의 조절원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⁵⁾ ‘토라에 대하여 엄격한 준수’(פִּיִּי צַדִּיק/의인)도, 그렇다고 ‘토라에 대한 극단적 거부’(עֲוֹן רָשָׁע/악인)도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토라에 대한 준수여부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토라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모든 선한 것(טוֹב 토브/“좋으니”)의 기준이 되는 원리가 된다. 전도자는 율법주의(Nomismus)도 반율법주의(Antinomismus)도 모두 배격한다. 전도자는 단순히 가운데의 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중용(mediocritas)을 하나님 경외라는 신학적 개념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전도자의 본질적인 탁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전 7장 19절은 전도자의 주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혜전승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이 구절은 다시 한 번 지혜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대변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을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권력을 능가하는 지혜의 탁월성을 찬송한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적인 지혜문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잠 21: 22; 참조. 잠 24: 5). 이 구절은 지금까지 앞에서 전개한 15-18절의 의도를 반대하는 이의제기에 해당된다.

전도자는 전 7장 20절에서 19절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반격을 한다: “선(טוֹב 토브)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פִּיִּי צַדִּיק)은 세상에 없기 때문 이로다.” 이 단락에서 의인과 지혜자는 사실상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전도자는 지혜의 탁월성(의인의 탁월성) 주장에 대하여 전통의 근본적 통찰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한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왕상 8: 46; 참조. 창 8: 21; 욥 4: 17-19; 9: 2; 잠 20: 9; 시 51: 5; 143: 2).

4) 관용 혹은 비판(전 7: 21-22)

전 7장 21-22절은 바로 앞 구절(20절)의 내용을 예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⁷⁾ 전도자는 21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말 것을 권

고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1b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즉, 21b절은 목적절로도 번역이 가능하고(“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또한 원인절로도 번역이 가능하다(“왜냐하면 너는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⁸⁾ 후자의 번역은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속관계에 놓인 사람의 말은 진정한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말들은 어느 정도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도 가끔은 말의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22절).

또한 전자의 번역은 취하면, 이 구절은 관용과 관대함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20절), 주인은 종이 자신을 저주할 때 자신의 종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2절은 또 하나의 근거를 보충한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주인도 종도 모두 모두 실수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5) 지혜의 불가해성(전 7: 23-24)

전 7장 23-24절은 지혜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앞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뒷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단위로 다루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다. 이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3a절은 이어지는 단락의 일종의 표제로 이해된다: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전도자는 지혜를 매개로 무엇인가를 시도하였다. 그는 이 매개, 즉, 지혜를 습득해야지만 그가 원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러나 결과는 부정적으로 판결이 났다: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세상을 연구했지만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었다. 전도자는 지혜를 갖지 못한 지혜자였다.³⁰⁾

25)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89쪽.

26)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390쪽.

27)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29쪽.

28)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29쪽.

29) L. J. Vilchez, *Ecclesiastés o Qohélet* (Nueva Biblia Española: Sapienciales 3), (Navarra: Editorial Verbo Divino, 1994), 318-319쪽.

30) M. V. Fox/B. Porten, “Unsought Discoveries: Qohelet 7:23-8:1a”, *HS* 19 (1978), 26-38쪽, 특히

이 진술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언급했던 지혜비판적인 표현들을 상기시킨다(전 1: 16-18; 2: 13-17; 7: 7-10, 11-14, 15-20). 전도자는 전통적인 지혜개념과는 거리를 둔다. 예를 들어, 잠언은 전통적인 지혜를 대변하는데, 그 가운데 잠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준다: “나[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전통적인 지혜개념에서는 지혜란 매력적인 애인으로 소개되고, 지혜에 대한 추구와 발견의 과정이 사랑의 언어로 묘사된다(참조, 집회서 51: 13-30; 지혜서 6: 12-14). 찾고 찾으려면 지혜는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자도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참조, 전 8: 16-17). 전도자에게 지혜란 인간에겐 불가해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전 7장 24절은 23b절의 “지혜가 나를 멀리(לְרֵחוֹק רֵחוֹקָא) 하였고도다”는 진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רֵחוֹק רֵחוֹקָא)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מִי יֵדָע מִיָּדָעָא) 마짜/발견하다.” 여기서 “이미 있는 것”(רֵחוֹק רֵחוֹקָא)이라는 표현은 전 1장 9절(לְרֵחוֹק רֵחוֹקָא) 마-쉐하야/“이미 있었던 것”), 3장 15절(לְרֵחוֹק רֵחוֹקָא) 마-쉐하야/“이제 있는 것”), 6장 10절(לְרֵחוֹק רֵחוֹקָא) 마-쉐하야/“이미 있는 것”)의 표현과 일치한다. 24절은 이미 있는 것, 즉, 과거는 지나가 버린,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것(“멀고”)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전도자는 왜 여기서 갑자기 지혜를 과거와 연결시키고,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식의 개념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한 듯싶다.³¹⁾

전통적인 지혜전승에 따르면, 지혜란 전통적으로 전달된 지식이다. 지혜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검증된 지식이라는 것이다. 잠언 4장에 따르면 지혜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계승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잠 4: 4; 참조, 잠 1: 8). 전통을 통하여 계승되고(“듣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검증(“연구하다”)되는 것이 구약지혜의 특징이다: “불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욥 5: 27).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개념과는 다른 반대개념을

대변한다. 전도자는 노력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했다(전 7: 23-24; 8: 16-17). 그는 전통을 통하여 전수된 지식을 습득하였다(전 7: 26-27). 그러나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이것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전 7: 28). 결국 전도자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 듣지는 말아라”(전 7: 21-22)라고 추천한다.

6) 여성혐오적인 진술(전 7: 25-29)

전 7장 25-29절³²⁾은 무척 난해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서, 전도서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³³⁾ 따라서 이 단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25절: 지혜비판적인 논의의 도입, 2) 26-27절: 여성혐오적인 진술의 발견, 3) 28절: 여성혐오적인

32) 이 단락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D. Rudman, “Woman as Divine Agent in Ecclesiastes,” *JBL* 116 (1997), 411-427쪽; C. R. Fontaine, “‘Many Devices’ (Qoheleth 7,23-8,1): Qoheleth, Misogyny and the Malleus Maleficarum,” A. Brenner/C. R. Fontaine(ed.), *Wisdom and Psalms*, FCB 2/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37-168쪽; J. Stolze, “Kohélet und die Frauen: Ein Versuch zu Gedankengang und Sinn von Kohélet 7,23-29,” *Theologie für die Praxis* 24, (1998), 51-63쪽; R. Jost, “Frau und Adam(hebr. אָדָם): Feministische Überlegungen zur Auslegung von Kohélet 7,23-29,” E. S. Gerstenberger/U. Schoenborn(Hg.), *Hermeneutik-Sozialgeschichtlich: Kontextualität in den Bibelwissenschaften aus der Sicht (latein) amerikanischer und europäischer Exegetinnen und Exegeten*, (Exegese in unserer Zeit 1), (Münster: Lit, 1999), 59-67쪽 등.

33)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39쪽.

34) 이 단락에 대한 해석입장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여성 혐오적인 진술”과 동시에 전도자의 견해로 보는 해석(A. Lauha, *Kohélet*, 141쪽; Fox, 266-267쪽); (2) 전도자의 견해로서 “이방여인에 대한 진술”로 보는 해석(Murphy, 76쪽; I. Riesener, “Frauenfeindschaft im Alten Testament? Zum Verständnis von Qoh 7,25-29,” A. A. Diesel/R. Lehmann/E. Otto/A. Wagner(Hg.), *Jedes Ding hat seine Zeit...<>*, FS D. Michel, 193-207쪽 특히, 197쪽); (3) 전도자의 견해로서 “은유적 진술”(지혜부인)로 보는 해석(T. Krüger, *Kohélet[Prediger]*, 263쪽; C. L. Seow, *Ecclesiastes*, 262쪽, 271-272쪽); (4) 전도자의 견해가 아니라 그의 “인용과 비판”으로 보는 해석(N. Lohfink, “War Kohél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M. Gilbert(Hg.), *La Sagesse de l’Ancien Testament*, 259-287쪽, Notes additionelles, 1980, 417-420쪽;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225-238쪽; L. Schwienhorst-Schönberger,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K. Kiesow/T. Meurer(Hg.), *Textarbeit*, 443-455쪽).

28쪽.

31)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98쪽.

진술의 오류관정, 4) 29절: 창조신학의 인용.³⁵⁾

전 7장 25a절은 전도자가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노력했음을 진술한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여기서 ‘명철’(מִשְׁפָּטִים 헤세본)이란 지혜의 특별한 한 형태로서 귀납법적인 연구로 습득된 지식을 가리킨다.³⁶⁾ 25b절은 이미 그 결과를 알려준다: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즉,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전도자 특유의 문장 기술에 속한다(참조. 전 1: 13-2: 2). 이러한 문장구성은 대개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마련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 근거와 자세한 설명을 기대한다. 이러한 결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묘사가 지혜비판적인 논의라는 암시만 느낄 수 있다.

전 7장 26절은 전도자의 견해가 아니라 전도자가 발견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³⁷⁾ 이 인용구의 내용 가운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진술은 여성혐오적인 묘사의 최고 절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 표현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강하게 여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있을까? 전도자는 이와 같은 여성혐오적인 진술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알이 살피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7절).

전 7장 28절은 새로운 사상을 이끈다. 26-27절에서는 ‘발견’(מָצָא 마짜/찾음)의 관점에서 묘사되었다면(26절의 “내가 알아내었다”(מָצָא 마짜), 27절의 “내가 낱알이 살피”(מָצָא 마짜)와 “이것을 깨달았노라”(מָצָא 마짜), 28절에서는 ‘발견하지

못함’(מָצָא מָצָא 로 마짜)의 관점에서 진술된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מָצָא מָצָא 로 마짜)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מָצָא 마짜)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מָצָא מָצָא 로 마짜).” 28a절은 전도자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려준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전도자가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한, 즉, 논증할 수 없는 주장이 28b절에 인용된다: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전도자는 이러한 여성혐오적인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전도자는 28b절의 주장을 거부한다.

전 7장 29절은 전도자가 발견한 것을 소개한다: “내가 깨달은 것(מָצָא 마짜)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אָדָם 아담)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자는 여성혐오적인 주장에 대한 상당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고(28a절), 29절에서 자신이 발견한 이 주장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소개한다. 이 구절은 창조신학적 진술이다. 하나님은 사람(아담), 즉, 남자와 여자를 정직하게 만드셨다. 전도자가 전 3장 11a에서 창 1장 31절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바와 같이, 여기서는 창 1장 26-28, 31절을 마음에 두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도자는 여기서 창조신학을 인용함으로써 남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성, 즉,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은 창조신학적 진술과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 26-27). 26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자는 남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구분되는 형태를 지닌 존재이다(창 2: 18, 21-25). 전도자는 창조신학을 근거로 여성혐오적인 주장의 허구성을 파고든다. 29b절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에서 ‘꾀’(מַחֲשָׁבוֹת 히쉬보노트)는 여성혐오적인 표현(26절, 28절)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 단락의 첫 구절(25절)의 내용이 드러난다. 여성혐오적인 주장은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무매한 것이요 미친 것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35)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02쪽.

36) N. Lohfink, “War Kohel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M. Gilbert(Hg.), *La Sagesse de l’Ancien Testament*,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5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9), 259-287쪽 & 417-420쪽, 특히 276-277쪽; F. J. Backhaus, “Es gibt nichts Besseres für den Menschen”(Koh 3,22): Studien zur Komposition und zur Weisheitskritik im Buch Kohelet, (BBB 121), (Bodenheim: Philo, 1998), 273쪽.

37) 전 7장 26절의 여성을 ‘지혜부인’으로 보는 해석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T. Krüger, “‘Frau Weisheit’ Koh 7,26?,” *Biblica* 73 (1992), 394-403쪽.

3. 신학적 메시지

1)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전 7: 1-10)

전 7장 1-10절은 인용(1-6a절)과 반박(6b-10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구는 “분노(슬픔)가 웃음보다 낫다”(3a절)고 주장하는 반면, 전도자는 “분노(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문다”(9b절)로 반박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슬픔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도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도자는 다만 슬픔이 삶의 핵심이고 본질을 형성한다는 가르침을 거부한다. 인생에 대한 슬픔(4절)과 분노(3절)의 태도가 깊은 통찰의 표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9-10절). 전도자는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는 자신에게 닦친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로서 수용하면 허물어진다고 본다(참조. 전 2: 24: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러한 점에서 전도자는 “성서적 창조신학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참조. 전 3: 11). 허무주의는 사실 허무한 것이다.

2)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함 앞에서(전 7: 11-14)

전도자는 이 단락에서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과신(11-12절)을 비판한다(13-14절). 인간의 삶이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변경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편함과 불행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에 상응하여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곤고한 날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외되지 않는다. 욕이 그러했듯이,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은 당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만 주목할 수 있다면 삶이 아무리 곤고한 날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단정코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³⁸⁾

38) W. P. 브라운, 『전도서(현대성서주석)』 (채 은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141쪽.

3) 인생의 유일한 길인 하나님 경외(전 7: 15-20)

전도자는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의 허점에 주목한다(15절). 이에 따라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멸에 이를 수도 있다(16절). 또한 과도하게 악인과 우매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단명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17절). 전도자는 두 가지,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중용을 통하여 창출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18절). 의인은 토라를 준수하는 삶을 사는 자이고, 악인은 토라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자이다. 하나님 경외는 토라준수보다 우선적인 것이다. 전도자는 전통을 경솔하게 무시하지 않는다. 그는 그 전통의 본래적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다. 전도자는 전통의 파괴자가 아니라 전통의 창조적 해석자요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다. 전도자가 추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4) 남의 말에 기죽지 말라(전 7: 21-22)

전도자는 이 구절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 것을 권고한다. 즉, 말의 홍수 속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이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곧이곧대로 모두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모든 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남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어느 정도의 사안은 관대함으로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자신도 이러한 말의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남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적어도 남의 말에 기죽어서는 안 된다.

5) 부정이 긍정보다 더 긍정적일 수도(전 7: 23-24)

전도자는 여기서 지혜는 발견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선배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신의 연구와 경험상 지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도자는 전통에 대하여 무조건 따르려하기 보다는 우선 비판적으로 검토하려한다. 이는 전도자의

지혜비판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전도자의 이러한 입장은 무비판적이고 과잉적인 긍정의 신학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보인다. 긍정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이고, 부정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이다. 어쩌면 객관적인 부정이 주관적인 긍정보다 실체에 더 접근하는 길일 수도 있다. 사실 '부정의 신학'(theologia negativa)이 '긍정의 신학'(theologia affirmativa)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일 수도 있다.

6) 여자가 되가지고?(전 7: 25-29)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은 그리스 문헌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³⁹⁾ 전도자는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의 경향인 여성혐오 사상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도자는 전통적인 지혜사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조의 헬레니즘의 사상과도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대의 전통적인 지혜의 문헌에서는 여성 자체를 혐오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젊은 남자 청년에게 이방 여인, 잔소리 많은 여인과 부도덕한 여인을 경계하라고 하지, 여인 자체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는 않는다(참조. 잠 2: 16-19; 6: 20-35; 7장; 11: 22; 욥 31: 9-10 등).⁴⁰⁾ 구약의 지혜문학에서는 여성을 높이 평가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웨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잠 18: 22; 참조. 잠 5: 15-20; 12: 4; 19: 14; 31: 10-31).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된 존재이다. 한쪽의 비하는 또 다른 한쪽의 추락을 의미한다. 남녀는 공동운명체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창 2: 23-24). 인생의 양쪽 날개가 창공을 향하여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동등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4. 요약과 결론

첫째, 전 7장은 전도자의 전통적 지혜의 주장에 대한 인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인용과 진술을 구분하지 않으면

39)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 239쪽; L. Schwienhorst-Sch nberger, *Kohélet*, 408쪽.
40) 잠 31장 3절(“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은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왕의 아들에게 준 경고로서, 여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왕실의 규방(Herem)과 관련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주장이 충돌하여 이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다. 인용구로 보이는 구절은 1-6a절, 11-12절, 19절, 26절과 28절이다. 전 7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이에 대한 전도자의 비판적 논증이다.

둘째, 전 7장 1-10절은 비판적인 인생관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인용 구절의 저자는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초상집에 두는 비판적인 삶을 권장한다(전 7: 1-6a).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현재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의 삶을 즐겨야 한다는 긍정적인 삶을 제시한다(전 7: 6b-10절).

셋째, 전 7장 11-14절은 하나님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도자는 전통적인 가르침인 지혜에 대한 과신(11-12절)을 비판한다(13-14절). 인간이 더는 변경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불행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맞추는 삶이 진정한 지혜임을 논증한다.

넷째, 전 7장 15-20절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사상의 허점을 파고들고, 극단적인 길들을 피하고 중용(mediocritas)이라는 가운데 길을 하나님 경외사상과 결부하여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다섯째, 전 7장 21-22절은 남의 말에 대한 바른 처신에 대하여 다룬다. 이 단락은 21b절을 목적절로 보면, 관용과 관대함의 태도를 권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인절로 보면 회의적 태도를 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섯째, 전 7장 23-24절은 지혜의 불가해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어느 누구도 지혜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일곱째, 전 7장 25-29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이 단락은 당시 헬레니즘의 경향인 여성혐오적인 주장(26절, 28b절)에 대하여 창조신학적 입장(29절)에서 반박한다. 여성혐오적인 주장은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우매한 것이요 미친 것의 전형이라는 것이다(25절).

5. 참고 문헌

계제니우스, H. F. W,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 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김 영진, 「삶의 의미를 찾아서」(서울: 이레서원, 2008).
머피, R. E., 「전도서」(WBC 성경주석) (김 귀탁 역), (서울: 솔로몬, 2008).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브라운, W. P., 「전도서(현대성서주석)」채 은하(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링그렌, H/침벌리, W., 「잠언/전도서(국제성서주석)」(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차 준희, “전도서 5장의 신학적 읽기: 주석과 메시지,” 「구약논단」 제 36집 (2010), 116-135쪽.

Bartholomew, C. G.,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9).

Bonora, A., *Il Libro di Qoèlet*, (Guide Spirituali all'Antico Testamento), (Roma: Città Nuova, 1992).

Choi, J. H., “The Doctrine of the Golden Mean in Qoh 7,15-18: A Universal Human Pursuit,” *Biblica* 83 (2002), 358-374쪽.

Crenshaw, J. L., *Ecclesiaste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Fontaine, C. R., “Many Devices'(Qoheleth 7,23-8,1): Qoheleth, Misogyny and the Malleus Maleficarum,” A. Brenner/C. R. Fontaine(ed.), *Wisdom and Psalms*, (FCB 2/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37-168쪽.

Fox, M. V.,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Fox, M. V./Porten, B., “Unthought Discoveries: Qohelet 7:23-8:1a,” *HS* 19 (1978), 26-38쪽.

Galling, K., *Der Prediger: Die Fünf Megilloth* (HAT 1/18), (Tübingen: Mohr Siebeck, 1969), 73-125쪽.

Gordis, R.,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³).

Johnson, B. Art, “גִּדְרָן”, *ThWAT* 6, (1989), 898-924쪽.

Jost, R., “Frau und Adam(hebr. אָדָם): Feministische Überlegungen zur Auslegung von Kohelet 7,23-29,” E. S. Gerstenberger/U. Schoenborn(Hg.), *Hermeneutik-Sozialgeschichtlich: Kontextualität in den Bibelwissenschaften aus der Sicht (latein) amerikanscher und europäischer Exegetinnen und Exegeten*, (Exegese in unserer

Zeit 1), (Münster: Lit, 1999).

Jouion, P./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Press, 1991).

Hengel, M.,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 des 2. Jh. v. Chr.*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88).

Köhler, L./Baumgartner, W.(Hg.),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con zum Alten Testament*, (Bd. II), (Leiden: E. J. Brill, 1974).

Krüger, T., “‘Frau Weisheit’ in Koh 7,26?,” *Biblica* 73 (1992), 394-403쪽.

_____, *Kohelet(Prediger)*,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Lauha, A., *Kohelet*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Levy, L., *Das Buch Qoheleth.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Sadduzäismus* (Leipzig: J. C. Hinrich'sche Buchhandlung, 1912).

Lohfink, N., “War Kohel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M. Gilbert(Hg.), *La Sagesse de l'Ancien Testament*,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5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9), 259-287쪽, Notes additionelles, 1980, 417-420쪽.

_____, *Kohe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41993).

_____,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Sean McEvenu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Longman III, T.,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Lux, R., “Der ‘Lebenskompromiss’-ein Weseszug im Denken Kohelets? Zur Auslegung von Koh 7,15-18,” J. Hausmann/H.-J. Zobel(Hg.), *Alttestamentlicher Glaube Biblische Theologie*, (FS H. D. Preuss), (Stuttgart: Kohlhammer, 1992), 267-278쪽.

_____, “)»Denn es ist kein Menschen so gerecht auf Erden, daßer nur Gutes tue... <<: Recht und Gerechtigkeit aus der Sicht des Predigers Salomo,” *ZThK* 94 (1997),

263-287쪽.

Michel, D., *Qohelet*, EdF 258,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8.
 _____,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Riesener, I., "Frauenfeindschaft im Alten Testament? Zum Verständnis von Qoh 7,25-29," A. A. Diesel/R. Lehmann/E. Otto/A. Wagner(Hg.), *Jedes Ding hat seine Zeit...* (FS D. Michel, (BZAW 241), (Berlin: de Gruyter, 1996), 193-207쪽.
 Rudman, D., "Woman as Divine Agent in Ecclesiastes," *JBL* 116 (1997), 411-427쪽.
 Schwienhorst-Schönberger, L.,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 (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K. Kiesow/T. Meurer(Hg.), *Textarbeit*, FS P. Weimar, (AOAT 294), 2003, 443-455쪽.
 _____, *Kohe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Seow, C.-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Stolze, J., "Kohelet und die Frauen: Ein Versuch zu Gedankengang und Sinn von Kohelet 7,23-29," *Theologie für die Praxis* 24 (1998), 51-63쪽.
 V Ichez, L. J., *Ecclesiastés o Qohélet* (Nueva Biblia Española: Sapienciales 3), (Navarra: Editorial Verbo Divino, 1994).
 Whybray, R. N., *Ecclesiaste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9).

검색어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인과응보의 논리
 지혜의 한계

죽음 이후의 희망
 즐김과 창조신학

The Critical Reflection of the Traditional Wisdom: The Exegesis and Theological Message of Ecclesiastes 7

Jun-Hee C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This article may suggest an attempt to build a bridge between the teachings of theological schools and the preaching in the churches. For that reason, firstly I will focus o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chapter 7 of the book of Ecclesiastes which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Furthermore, I will draw the theological message from the text with an expectation that message is to be proclaimed in the churches.

Firstly, Ecclesiastes ch. 7 composes quotations from the claim of traditional wisdom and critical arguments against the claim of traditional wisdom. Thus, if the quotation is not separated from Qohelet's statement, there will be a conflict among these incompatible claims, and so it will not be clear what Qohelet says in this text. Verses 1-6a, 11-12, 19, 26 and 28 are regarded as quotations. The rest of the verses in chapter 7 is Qohelet's critical argument against the quotations.

Secondly, Ecclesiastes 7:1-10 is about putting a brakes on pessimistic view of life. The author of the quotation maintains that since life finally comes to death,

the human heart should be placed in the mourner's house; the author suggests the pessimistic view of life(Ecc. 7:1-6a). Qohelet, however, suggests that because life goes toward death, human beings should place value in reality and enjoy present life; Qohelet indicates the positive view of life(Ecc. 7:6b-10).

Thirdly, Ecclesiastes 7:11-14 contains profound reflections on the acts of God. Qohelet criticizes(v. 13-14) the overconfidence of the conventional wisdom teaching(v. 11-12). Qohelet argues that the true wisdom teaches the human being to accept the unalterable, unavoidable inconvenience and misfortune, and adjust their lives to those situations.

Fourthly, in Ecclesiastes 7:15-20, Qohelet probes into the weak point of the conventional retribution theory(v. 15), and advises to avoid the extreme attitudes(excessive goodness and excessive wickedness; v. 16-17). He theologially explains the middle way, that is, moderation(mediocritas) linked with the fear of God(v. 18). Qohelet suggests that the fear of God is more important than the obedience of Torah.

Fifthly, Ecclesiastes 7:21-22 is about how to rightly deal with reviling words on other people's mouth. This paragraph could be regarded as advice to magnanimity and generous attitude if verse 21b is the final clause, or it could be analyzed as advice to skeptical attitude if the verse is a cause clause.

Sixthly, Ecclesiastes 7:23-24 concerns incomprehensibility of wisdom. Anyone cannot find the wisdom.

Seventhly, Ecclesiastes 7:25-29 is the most difficult part of Ecclesiastes. From the aspect of creation theology(v. 29), this verses refute the claim of detesting females which was the propensity of Hellenistic culture(v. 26, 28b). Qohelet asserts that the claim of detesting females is a model of wickedness, stupidity, madness, and folly(v. 25).

Keywords

Memento Mori

Carpe Diem

The theory of retribution

The limit of wisdom

The hope after the death

Enjoyment and the theology of creation

■ 투고일: 2011년 9월 30일

■ 심사일: 2011년 10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6일